

삼성전자,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살바라니'와 전략적 제휴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업체와 손잡고 빌트인(Built-in) 사업 일류화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7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현봉 생활가전총괄 사장, 이문용 시스템가전 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업체 '살바라니(Salvarani)'와 디자인 분야 협업과 신제품 공동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살바라니'는 이탈리아 종합가구업체인 FEG 그룹의 주방가구 계열사로 1959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최고급 주방 가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으며 이태리 전역에 300개의 판매망과 전세계 약 60개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살바라니는 이번 제휴로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최고급 명품 가구를 융·복합화

(convergence)한 빌트인 신제품을 개발, 신 개념 주거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양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전과 가구가 융·복합화된 신개념 빌트인 제품을 개발·출시하는 한편 향후 협의를 통해 기술·유통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조인식에 참석한 로사 엘리(Rosa Elli) 살바라니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살바라니의 고품격 가구의 만남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제휴의 의의를 밝혔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총괄 이현봉 사장은 "국내 빌트인 가전시장은 오는 2010년까지 6,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협력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LG전자 PDP TV, 중남미 허브공항 점령

LG전자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음질 연구(音質研究)가 '음파무향실' 준공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LG전자는 12일 DM사업본부장 황운광부사장, 서울대 한민공대학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파무향실(音波無響室)'의 준공식을 가졌다.

음파무향실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서울대와의 산학협력 구축을 위해 기증키로 한 것으로 8개월 여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음파무향실은 음악이나 소리가 벽이나 바닥 등에 반향되는 것을 막아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주는 공간으로, 이번 음파무향실은 인체에 유해했던 기존의 유리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소재인 멜라민을 사용해 연구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음질 연구를 위해서는 모든 음향학적 데이터가 무향실에서 이뤄져야 최적의 음질평가가 가능하고 독자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신뢰성 있는 무향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음파무향실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는 스피커 음질개선 및 객관적 음질평가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오디오 분야에 대한 LG전자와 서울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대와 공동으로 ▲ 객관적 음질평가 시스템 개발 ▲ 음질평가 Tool 정리 ▲스피커 최적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 휴대폰, 올 상반기 신형시장서 약진	2005.08.08
2	삼성전자, 세계최초 TD-SCDMA 동영상통화..	2005.08.05
3	삼성전자, 브라질 축구영문 '코린치안스' 후원	2005.08.04
4	삼성전자, 유해물질 없는 제품 만든다	2005.08.01
5	삼성전자, '컬러파워 페스티벌' 실시	2005.07.30
6	佛 휴대폰시장 '삼성 넘버원'	2005.07.29
7	삼성 중대형 모니터, 세계 권위서 어워드 석권	2005.07.29
8	삼성 휴대폰, 남아공서 폭발적 성장세	2005.07.28
9	삼성전자 미니켓-다음커뮤니케이션 제휴	2005.07.26
10	삼성-KT, 옥타브스위치 공급 계약	2005.07.25
11	臺灣기업 CEO들, '삼성전자 배운다'	2005.07.25
12	삼성전자, 2분기 순이익 1조 6천 9백억원	2005.07.16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첨단과 고급의 '프리미엄 LG' 알리기 나선다	2005.08.04
2	LG전자 LW60 시리즈, 세계최초 '친환경 노트북' 공인	2005.08.02
3	그리스 아테네 해안을 물들인 LG전자	2005.07.29
4	LG전자, 소년소녀가장 위한 '영어 캠프' 개설	2005.07.28
5	LG전자, '블루오션' 바람 일으킨다	2005.07.25
6	LG전자, '러시아 프리미엄 마케팅' 강화	2005.07.22
7	LG전자, 브라질 따우빠테시 휴대폰 공장 준공	2005.07.22
8	LG전자, 디자인도 '현지화'로 승부한다	2005.07.22
9	LG전자, 러시아에 'LG에어컨 아카데미' 개소	2005.07.22
10	LG전자, 2분기 매출 5조 6,152억원 달성	2005.07.19
11	LG전자 축구 후원 마케팅 '빛' 난다	2005.07.19
12	LG전자, 협력사 기술교육으로 '아름다운 동반 성장'	2005.07.12



최고의 음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황운광 부사장은 준공식에서 "최근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음파무향실 준공이 LG전자와 서울대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 2002년 7월 국내 최대규모 산학연계 연구단지인 'LG DTV연구소'를 서울대 연구단지에 설립하는 등 서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 연구개발인력 확보라는 큰 수확을 거두고 있다.

또 LG전자는 KAIST,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동대 등과도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삼성전기, 2분기 매출은 소폭 감소, 영업 적자폭 크게 개선

삼성전기는 '05년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6,863억원의 매출과 -1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기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6,863억원으로 6,983억원을 기록한 지난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1분기(-371억원) 보다 242억원 개선된 -129 억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삼성전기는 수주 극대화를 위한 총력 확산 체제 운영과 상반기 개발된 주요 신제품의 매출 규모 확대 및 경영 전반의 효율 제고 활동 등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6월에는 올해 들어 첫 흑자를 달성하는 등 하반기

흑자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삼성전기는 2분기에 BGA (Ball Grid Array, 반도체용 기판), 디지털 튜너, 블루투스 등의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가 하락 및 구조 조정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 하였으나, VE, 판매 관리비 감축 등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원가 절감 활동의 성과로 영업 이익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기판 부문에서는 BOC (Board On Chip), UT-CSP (Ultra Thin Chip Scale Package)와 같은 고부가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의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주력 부문인 HDI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고밀도 인쇄회로기판)의 판가 하락으로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2,180억원을 매출을 기록하였다.

칩부품 사업부는 1분기 중 개발한 고용량 신규 제품의 매출이 가시화 되었으나,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등 주요 제품의 판가 하락으로 전분기 보다 소폭 하락한 8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RF사업부는 디지털 튜너 및 블루투스 본격적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전압제어발진기) 등 모바일 RF 제품의 매출 감소와 DY(편향코일), FBT(고압 변성기) 등 제품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2,200억원을 기록하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 해외서비스 강화 나선다

7월 10일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따르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품 자체 해외 배송 운송수단 개선 △해외 물류거점 확대 △정보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8월부터 해외 사업장에서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전량 항공으로 운송키로 최근 확정했다. 그동안 주로 배를 통해 운송했으며 긴급 서비스에 필요 부품이나 패널 등 디지털 부품 일부만 항공편을 이용했었다. 전체 해외 운송 중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약 30~40%선. 이번 결정으로 장기 재고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부품은 8월 접수된 주문부터 모두 항공 운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외서비스팀 서명원 부장은 "배편을 이용할 경우 운송비용은 저렴하지만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등은 1~2개월이 소요돼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며 "항공편으로 전환하면 운송비용은 높아지지만 운송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얻는 해외 서비스 만족도가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자재 수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물류 거점도 늘린다. 올 들어 남미 지역을 겨냥해 파나마 콜론지역에 물류창고를 새로 구축했다. 또, 유럽 고객을 위해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를 세우기로 하고 후보지로 네덜란드, 독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기존에 아시아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두바이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1년 개설한 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인 '서비스정보센터(SIC : Service Information Center)'를 지난 6월 까지 활용성을 높이고 해외 정보 구축 부문을 확대하는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SIC는 국내외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ID가 2130명을 넘어서면서 대우 국내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글로벌 정보망이다. 이 시스템은 출시 모델 정보와 PDF 파일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 외에도 △가격정보 △공급불가 단종 정보 △제품 옵션 정보 △고장수리 사례 △교육 매뉴얼 △국내외 품질정보 등이 제공된다.

소니코리아, 문화마케팅 일환으로 제1회 "Loaded Gun 2005"展 지원

소니 코리아는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젊은 미술작가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인 제1회 "Loaded Gun 2005"展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니 코리아는 미술 작가들

의 작품활동에 필수적인 핸디캠 HDR-HC1을 비롯하여 소니 플라즈마베가 42인치 제품 (제품명: KE-MX42K1), LCD TV(제품명: MFM-HT75W, MFM-HT95), LCD 모니터 (제품명: SDM-HS75P, SDM-HS95P, SDM-P234) 등 총 11대를 지원 및 증정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소니가 최근 출시한 세계 최소형 HDV 핸디캠 'HDR-HC1'으로 작가들의 전시 준비과정과 작품을 직접 촬영, 전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소니의 대형 PDP, LCD TV, LCD 모니터로 마치 작품이 액자에 걸려있는 듯 생생한 고화질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의 작품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의 교육용으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7월 22일 저녁 경매행사로부터 시작, 8월 10일까지 21일간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Loaded Gun 2005"展은, 재능과 열정으로 '장전된(Loaded)' 촉망받는 작가 45인이 모여 예술적 끼를 맘껏 발산하는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LG마이크론, 조영환사장 'APO National Award' 수상

지난 7월 14일 조영환사장은 구미 센츨리 호텔에서 APO National



Award를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아시아 생산성 기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 비영리, 비편파적인 국제기구이다.

조영환사장이 APO로부터 수상하게 되는 APO National Award는 APO에서 5년마다 한 번씩 20개 회원국 기업인이나 장관급 이상 관료 중 경제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에서 조영환사장은 "최근 냉엄한 경영환경속에서 기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며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영환사장은 또 "LG마이크론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질적요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공격적인 R&D투자 및 활동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신사업 창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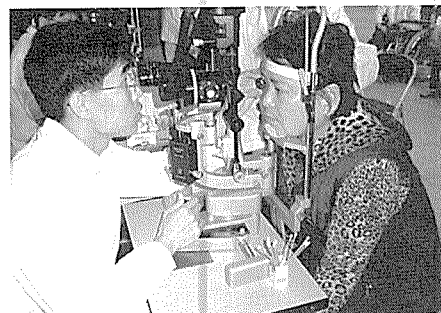
삼성SDI, 무료안과수술 및 진료 10만명 돌파

삼성SDI는 7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중인 움직이는 안과버스를 통한 무료 개인(開眼)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 1996년 이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에 처음 기증된 이 움직이는 안과 버스' 안에서 무료로 녹내장, 백내장 등 안질환 수술을 받은 사람만 4,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안과 버스는 19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35회의 이동 순회 진료활동을 통해 약 9만 5,700명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제공하는 활약을 펼쳤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현재 이 안과 버스는 월 3~4회, 월 평균 10~15일 동안 주로 농어촌과 섬마을·산간지역을 순회하며 주로 영세민과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시력을 되찾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보성, 강원도 횡성, 경북 울진, 제주도, 울산, 대구 등지에서 총 39회의 이동 진료를 펼쳤으며 올해도 전남 해남, 강원도 영월, 경남 남해 등을 순회하면서 약 40회의 진료가 예정돼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은 삼성SDI 김순택 사장이 평소 강조하는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기업 위상과 7개국 13개 생산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SDI 측은 밝혔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부터 무료개안 사업을 중국에서도 확대, 먼저 텐진(天津) 법인이 매년 텐진시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50명에게 개안 수술을 제공했으며 향후 타 법인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현대이미지퀘스트, DTV 브랜드 '뷰온(Vvuon)'으로 고급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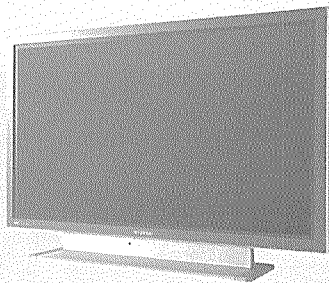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 기업인 현대이미지퀘스트가 디지털TV 사업에서 기존 사용하던 '현대' 상표 외에 새로운 프리미엄 상표인 '뷰온(Vvuon)'을 7월 12일 발표했다. '뷰온'은 아름다운 영상의 실현이라는 View of Visual Utopia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시각, 영상 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인 View와 On을 통해 보다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첫글자인 V에 시각적 이미지를 집중시켜

세련미와 안정감을 주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TV 전문 상표인 '뷰온'과 '현대'를 모두 사용하는 이원화 정책을 통해 현대 브랜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디지털TV에서 프리미엄 상표인 '뷰온'으로 고급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새롭게 출시되는 일체형 디지털TV에는 '현대 뷰온'이라는 상표가 사용되게 된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그동안 LCD TV, PDP TV, LCD 모니터 등 자사 전제품에 걸쳐 '현대(HYUNDAI)'라는 단일 상표를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상표에 대한 선호도에 맞춰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표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KEC인의 행동지침 제정, 선포식 거행

국내 최대 개별반도체 회사인 KEC는 최근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KEC 경영이념 실현과 KEC 21C VISION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만들어 가고 지켜야 할 'KEC인의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7월 20일 KEC 본사에서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KEC인의 행동지침'은 KEC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에 근거하여 KEC 기업문화의 기본이 되는 '정신 자세'와 '행동 양식'을 3본(本), 7행(行), 1악(惡)으로 정하고, KEC 전임직원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항상 숙지하고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을 규정하여 놓았다.



3본(本)은 '고객 가치', '윤리 준수', '회사 발전'으로, KEC의 모든 경영 활동, 조직이나 개인이 업무에 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실천하여야 할 정신자세를, 7행(行)은 '도덕', '창조', '혁신', '열정', '상생', '절약', '책임'으로 KEC인이 3본(本) 정신을 실천하며, 경영방침과 목표(VISION)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니고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1악(惡)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에 저항감을 가지며 실행하지 않는' 악습(惡習)을 KEC인은 반드시 경계하고 버려야 할 정신 및 행동으로 정하였다.

KEC는 지난 7월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본사에서 KEC 임원 및 국내외 거점장들이 모여 금번 제정된 'KEC인의 행동지침' 선포식을 거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선포식에서 장동(張東) 대표이사 사장은 "무엇보다도 1악(惡)의 의미를 잘 새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의 발휘와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자"며, "금일 선포한 'KEC인의 행동지침'도 매년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KEC인의 행동지침'의 애칭(愛稱)을 '3·7·1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KEC 임직원 모두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며, 항상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되어 '자랑스러운 KEC, 영원한 기업 KEC'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KEC는 금번 'KEC인의 행동지침'이 제정됨으로 KEC 전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할 경

영이념, 경영 목표(VISION), 그리고 정신 및 행동 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완수하게 되었다.

에이스테크놀로지, 중국공장 추가 설립

고주파(RF) 부품업체 에이스테크놀로지는 30여억원을 투자, 중국 동관에 세 번째 공장을 지난 6월말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설립은 중국 가오야오와 동관 공장에 이어 세 번째이며, 기지국 끝에 설치하는 증폭기(TMA) 전용 라인을 갖추고 있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공장이 완공된 후 2공장 시설을 옮겨 TMA를 연간 30만개 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는 2공장 생산능력의 두 배 규모로, 에릭슨에 공급하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최근 에릭슨에 공급하는 물량이 증가해 공장 증설에 들어갔다.

에이스테크놀로지 측은 "에릭슨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30여억원을 투자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총 80억원이 됐으며 향후 에릭슨 뿐 아니라 파워웨이브 등 다른 장비 업체에 공급하는 제품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증폭기를 포함한 RF부품과 안테나 전문업체로 RF부품 부문에서만 연간 36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